

◇누두홍의 3년간 경험

유원희, 김영태, 성숙환, 김주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누두홍은 흉벽질환중 가장 흔한 형태로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미용상의 목적으로 치료가 행해지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보통 3-5세의 소아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바 그 대략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추적관찰 성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6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본교실에서 누두홍으로 수술받은 10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으며 각각의 환자에 대하여 나이, 성별, 주호소, 주관적인 만족도, 흉골변형의 정도, 수술방법, 피부절개 방법, 합병증의 발생 여부, 그리고 추적관찰중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술은 거의 모든 레에서 라비치 술식에 따랐으며 [104례], 피부 절개도 대부분 유방하 절개[105례]를 하였다.

결과 : 대부분의 환자에서 미용상의 목적으로 수술이 행해졌으나 [98례, 92.5%] 잦은 호흡기 감염이나 운동시 호흡곤란을 주소로 수술한 경우도 있었다. 수술 당시의 평균 연령은 65.3 ± 22.0 개월이었으며 평균 키와 몸무게는 각각 114.3 ± 15.8 cm, 19.6 ± 6.6 kg였다. 남녀비는 81:25로 남자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적 사망율은 1례[0.9%]에서 있었으나 수유중의 질식과 관련되어 사망한 것으로 수술과는 관련이 없었고 주요한 합병증으로는 후기 합병증으로 심낭압진이 3례에서 있었으며 누두홍의 경미한 재발이나 연골의 변형거상이 13례에서 있었고 그 외에 기흉이나 상처 감염 등의 기타 합병증이 총 23례에서 있어 합병증의 병발률은 29% [31/105] 이었다. 술후 수술자나 보호자에 의한 만족정도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excellent 17%, good 68%] 누두홍의 재발이나 연골의 변형거상 등의 합병증은 수술 당시의 나이와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89] 대부분의 레에서 수술직후보다는 외래 추적관찰기간중 생겼으나 그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22] 심낭압진으로 인하여 외래 관찰중 심낭 천자를 한 3례를 제외하고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재수술을 한 레는 없었다.

결론 : 흉골기형인 누두홍의 치료로서 라비치술식에 의한 교정방법과 유방하 피부절개는 매우 높은 주관적인 만족도와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외과적인 기본 술식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후기 합병증으로 오는 심낭압진이나 연골변형 등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와 좀더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